

이걸 무슨 재미로 읽지?

효자제일교회 전도사·홍 순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벧을 낳고 오벧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야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웃시야를 낳고 웃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이거할 때에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를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이거한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스룹바벨은 아비훗을 낳고 아비훗은 엘리아김을 낳고 엘리아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엘리웃은 엘르아살을 낳고 엘르아살은 맛단을 낳고 맛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개역, 마태복음 1:1~16]

성 경을 처음 대하는 사람이 성경을 읽어 봐야겠다고 신약을 읽으면 마태복음부터 읽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부터 읽는 것은 처음 읽는 사람에게 작전상 불리한 점이 많습니다. 첫 장을 열면 재미있겠다 싶은 느낌이 들어야 하는데 길다란 족보가 먼저 나오는 것은 숨부터 막힙니다. 그래서 작전상 마태복음부터 읽게 하는 것은 유리하지 못합니다. 어떤 순서로 읽는 게 좋을까요?

요한복음

요한복음요? 요한복음은 정말 좋은 것이지만 다른 복음서에 비하여 조금 어렵습니다. 차원이 높은 감이 있지요. 그러면 누가복음이나, 마가복음을 먼저 읽는 것이 작전상 유리합니다. 특히 누가복음은 순서대로 되어 있다는 점과 그 뒤에 나오는 사도행전이 같은 저자라는 점에서 누가복음을 읽고 사도행전으로 넘어가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마태복음부터 읽기 시작하면 중도 포기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예수님의 무엇에 관한 이야기입니까?

족보.

족보입니까? 족보 같기는 한데 족보라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세계라.

그 말이 족보를 가리키는 말인가요?

성경에 예수님의 족보라는 소제목이 있어요.

저런 성경 가지고 있는 분들 때문에 설교하기 겁납니다. 제발 저런 거 안 써야 되는데... 잘못했다간 바로 들통 나거든요. 그렇습니다. ‘세계’라는 말이 우리가 흔히 쓰는 세계가 아닙니다. 이를 ‘계’, 혹은 핏줄 ‘계’라고 하는 系 자입니다. 그러니까 말을 바꾸면 족보와 같은 뜻입니다. 내용상으로 이것이 예수님의 족보인 것이 틀림없는데 세계라는 단어를 조금 주의하셔야 합니다. 한문 성경을 보시는 것이 이런 잘못에서 벗어나는데 도움이 됩니다. 이걸 분명히 예수님의 족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족보 이야기를 조금 하다가 본문으로 들어갈까 합니다. 기네스 북에 있는 가장 오래된 족보가 어느 나라 어떤 족보인지 혹시 아십니까?

김해 김씨

김해 김씨 족보요? 짐작이죠? 저도 김해 김씨 쪽이 아닐까 생각했는데 아니랍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건 맞아요. 그 분이 자기 성씨에 대한 자부심 때문에 확실하게 기억을 하고 있더라구요. 우리나라에 있는 안동 권씨 족보가 기네스 북에 올라 있는 세계 최고의 족보라고 합니다. 자랑이 대단하더라구요. 안동 권씨 족보하고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예수님의 족보하고 비교하면 어느 것이 오래된 것 같습니까? 비교가 안돼요. 그런데 왜 기네스 북에는 이 족보가 안 올라가고 안동 권씨 족보가 올라갔을까요? 이게 참 묘한 사람들의 편견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것들은 무조건 기록으로 취급을 안 하는 묘한 버릇들이 있습니다.

똑같은 이야기가 성경에도 있고 만약에 다른 데도 있으면 다른 데 있는 것은 자료로 취급하고 성경은 제외시켜 버립니다. 이게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일이나면, 성경에 많이 나오는 헛 족속 있죠? 창세기 공부할 때 이야기 드렸는데요 헛 족속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는 많이 나옵니다. 고고학이 발달하기 전에는 헛 족속에 대한 기록이 성경 외에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경이 틀렸다고 이야기했죠. 고고학이 발달하면서 헛 족속에 대한 자료가 뒤늦게 쏟아져 나온 겁니다. 그리고 보니 헛 족속은 굉장한 철기 문명을 지녔던 대단한 민족이었다는 것이 밝혀진 거지요. 지금은 역사책에 히타이트 족이라고 나옵니다. 근동에서 철기문화를 가지고 한동안 위세를 떨쳤던 대단한 민족이었습니다.

또 다른 예를 들면, 노아 홍수와 비슷한 이야기가 바벨론 설화에 있는데 두 이야기를 비교해 보면 성경이 훨씬 논리적이고 과학적입니다. 그런데도 학자들은 바벨론에 있었던 그 홍수 설화가 성경에 영향을 주어서 성경에 노아의 이야기가 생겼다고 주장합니다.

바벨론 설화의 주인공은 누우라는 노인입니다. 방주의 크기가 정육면체로 되어 있습니다. 바다에 정육면체 배가 떠 있다고 생각을 해 보세요. 떠 있을 수 없습니다. 노아가 만든 방주의 장, 광, 고에 관한 비율은 1844년 영국의 브루넬이 *The Great Britan*(98m×15.5m×9.9m, 방주의 2/3 크기)을 건조하면서 설계에 처음으로 사용하여, 항해보다는 잘 떠 있기 위한 대형 선박에 즐겨 사용하게 된 비율입니다. 이 비율은 현대 유조선이나 대형 전함의 비율과 흡사한 것이며, 1000년 동안 축적된 영국 조선기술의 결정판인 셈인데 이런 비율이 수 천년 전의 유목민의 글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후대 사람들이 자신들의 지혜로 현실에 맞게 수정한 이야기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성경의 기록은 전설로 돌리고 앞뒤가 잘 맞지도 않는 바벨론 설화에 나오는 이야기는 사실로 인정을 하는 묘한 버릇이 있단 말입니다.

다른 예를 하나 더 들죠. 학교에서 수업시간 중이나 특별활동 시간에 고전문학반을 만들어서 고전을 가르친다면 허용이 됩니다. 그런데 성경공부반은 안돼요. 성경은 고전 아니냐 고전 중의 왕고전 아니냐라고 우겨가지고 억지로 성사될 듯 하다가도 끝내 잘 안됩니다. 성경은 좋은 책이라고 인정하면서도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은 허용이 안됩니다. 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치면 안된다는 이런 편견 때문에 이 사회가 얼마나 많은 손해를 보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 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지혜롭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족보를 왜 기록하지요? 심지어 족보 없는 집은 옛날에 돈을 많이 주고 사기도 하고 남의 족보를 도용하기도 했습니다. 왜 집에 족보를 두려고 할까요? 우리 가문이 적어도 이 정도 가문이 된다는 것을 자랑하기 위한 것입니다.

한 30년은 된 듯 싶은데 우리 누님이 전라도 영광으로 시집을 갔습니다. 그 쪽에는 광산 김씨가 아주 양반으로 행세를 한다고 그래요. 우리 자형이 광산 김씨인데, 양가의 어른들이 만났을 때 우리 아버지는 조금 젊어 보이기도 하고 그 쪽은 양반 동네니까 사돈 어른이 우리 아버님 보고 “말을 놓겠네”라고 했답니다. 우리 아버지보다 20세가 많은 큰아버지가 따라 가셨는데 뒤에서 보고 있다가 이런 상놈들이 있나 하고 난리를 친 거죠. 우리 큰아버지가 족보 책을 넣어 갔답니다. 그 곳에서 광산 김씨 족보 내놓아라 이렇게 된 거죠. 두 영감님이 쭈그리고 앉아서 족보 싸움을 했는데 결국 남양 홍씨가 광산 김씨보다 더 양반이다라고 결론이 나고 그 다음부터 대접을 얼마나 잘 받았느냐면요 누나가 시댁에 가서 뭘 잘못하면 그럴 수도 있지... 좀 잘 하면 역시 양반집 규수는 달라 이렇게 나온 거지요. 지내기가 좋았다고 합니다. 남양 홍씨 얼마나 양반인지 저는 잘 모릅니다만 은기철 집사님이 언젠가 이야기를 하시더라구요. 나중에 물어보세요.

그게 뭔지 모르지만 그 족보 가지고 왜 그렇게 싸우는지 그 이야기를 듣고나니 우습기도 하고 재미있기도 하고 그래요. 집집마다 이런 족보를 가지고 문제 삼는 것은 자기들이 얼마나 위대한 조상을 가지고 있는지 자랑하기 위함입니다.

이제 성경 본문으로 들어가 봅시다. 읽어봐도 별로 재미는 없을 겁니다. 시간을 조금 드릴테니까 예수님의 족보 중에서 여러분들이 알만한 사람이 몇 명쯤 되나 헤아려 보십시오. 대강 보세요. 조금 틀려도 괜찮

습니다. 전체가 약 60명 가량 됩니다.

아는 사람이 40명 넘는 분 있어요? 없습니까? 30명은요? 없어요? 30명 넘는다고 하면 제 자리가 좀 위태롭니다. 20명은 넘겠다 싶으신 분? 몇 분 계시네요. 내리세요. 10명도 안될 것 같다 하시는 분? 없습니까? 손을 안 들어도 괜찮은데 10명이 안 되시는 분들은 반성하시고, 지금부터라도 성경 많이 읽으셔야 합니다.

많이 들어본 이름들이 20명 가까이 나오리라 생각합니다. 성경을 조금 아시는 분은 20명에서 30명 사이가 될 것이고, 아무리 몰라도 20명에서 10명은 있을 겁니다. 어떻게 해서 아는 사람이 이렇게 많이 있을까요? 남의 족보에...

구약 성경에 나오기 때문에

그것도 맞는 말씀입니다만 가장 정확한 대답은 이 족보가 보통 족보가 아닙니다. 왕의 족보입니다. 여러 분들이 알만한 많은 사람들은 왕의 조상이거나 왕입니다. 그러니까 알만한 거지요. 왕의 족보이므로 얼마나 아름답게 되어 있을까요? 그런데 이 족보를 유심히 보면 빼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빼냈으면 하는 사람 한번 불러봅시다.

다말.

또 있습니까?

여로보암.

여로보암도 빼고 싶으세요? 우리 권사님 대단합니다. 왜 여로보암을 빼야 하는지 이해 안 가시는 분도 더러 계시 테지요. 여로보암은 악한 왕의 대명사이지요.

라합.

라합도 빼고 싶어요? 기생이라고 빼버려요. 또?

우리아의 아내.

그렇습니다. 왜 빼요? 다시 말하면 족보에 넣지 말아야 할 사람들이 이 족보에 들어와 있다는 뜻입니다. 기피 인물 1번이 다말인데 다말을 왜 빼야 하죠? 다말은 참으로 곤란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과 하나님과는 무슨 관련이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는 더 공부를 해 보셔야 할 문제지만 겉으로만 본다면 다말은 시아버지와 관계해서 아들을 낳은 여자거든요. 동네 소문나면 그 동네에 못 삽니다. 다말에게는 분명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유가 있었고 그 시아버지가 죽이려고 끌고 나가다가 그 사실을 알고 난 후에 나보다 이 여자가 더 옳다라고 고백을 하고 죽이지 못했던 거지요. 이유야 어떻든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에 아들이 태어났 다. 그 여자 이름이 다말이란 말이에요. 그런 여자를 족보에 버젓이 올려놓았던 말입니다.

아까 라합이 기생이라고 했었는데 어쩌면 기생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긴 해요. 이스라엘 입장에서 본다면 우리 민족에게 큰 도움을 준 여자입니다. 그런데 여리고 성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민족의 배신자입니다. 그리고 신분이 기생이었던 말이에요. 이스라엘 입장에서 도움을 많이 주었으니 족보에 그냥 두자는 사람도 있겠고 반대도 있긴 있는 모양이지요.

결정적으로 빼고 싶은 사람은 우리아의 아내지요. 예전에 성경 보면서 우리아의 아내라는 걸 보고 성경에 왜 이렇게 기록했을까? 이게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참 기가 막히다는 느낌을 받은 구절입니다. 우리아의 아내...? 이 여자는 이름이 없습니까? 밋세바라는 이름이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밋세바에게서 솔로몬을 낳고'라고 기록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밋세바에게서라고 하지 않고 '우리아의 아내에게서'라고 적었 거든요. 느낌이 오세요? '우리 아버지가 옆집 아줌마에게 가서 나를 낳고'와 똑같은 말입니다.

다윗은 누구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아야 정상이지요? 자기 아내죠. 그런데 성경은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우리아의 아내 대신에 밋세바라고 써 주면 사람들이 다윗과 밋세바는 부부 사이였구나라고 생각하겠지요? 그렇게 오해하지 말라고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라고 쓴 것 같아요. 이것은 감추기커녕 고의로 소문내고 있는 느낌을 줍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사고칠 때는 밋세바가 우리아의 아내였지만 솔로몬을 낳을 때는 다윗의 아내가 맞거든요.

오래 전에 장군 한 명을 모셔다가 군인으로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할 수 있었느냐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월남까지 갔다 오신 분이거든요. 간중 삼아 들으면서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처음 자기 소개를 이렇게 하더군요. 자기 어머니가 유관순하고 동기 동창인데 만세 부르다가 도망가서 어느 다리 밑에서 떨고 있었답니다. 이웃 마을에서 밤새 노름하고 돌아오던 백마 탄 젊은 분이 오다 보니까 다리 밑에 처녀 둘이 떨고 있었는데 그 두 처녀를 주워다가 잘 생긴 것은 자기하고 못생긴 것은 친구 주었는데 잘 생긴 게 자기 어머니라는 거예요. 제 표현이 아니라 그 분의 표현대로입니다.

자기 어머니는 일본에 한이 맺혀서 “내가 일본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아들을 많이 낳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아들을 12명 낳았는데 그 중에 자기가 7번째라던가 그랬습니다. 세상에! 자기소개를 그렇게 하는 분은 처음 봤어요. 그것도 남의 이야기하듯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습기는 우스운데 함부로 웃기도 그렇고... 난감하더라고요.

그때 그 당혹감보다 여기 우리아의 아내에게서라는 것이 훨씬 더 당혹스럽더라 말입니다. 이것은 다윗이 잘못된 것을 덮어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밝히려는 것으로 보인다는 이야기지요. 결국 예수님의 족보에서 빼고 싶은 사람들을 그대로 넣어 놓았다는 것은 이 족보가 조상들의 위대함을 자랑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랑하고 싶다면 악한 왕들과 몇 여자를 빼야 된다는 것입니다.

홍씨 족보에도 여자가 몇 있습니다. 요즘에는 여자 이름도 족보에 올린다고 합니다만 예전에는 그럴 수 없었지요. 그런데 남양 홍씨 족보에는 여자 분이 몇 명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양반 족보라는 것을 감안해서서 대답하세요.

수절한 사람...

수절했다고 족보에 올려요?

왕의 처...

왕의 처가 뭘니까 왕비지요. 혜경궁 홍씨가 남양 홍씨거든요. 왕비정도 되니까 족보에 올려놓은 겁니다. 족보에 여자 이름이 올라갔다는 것은 대단한 여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족보에 나오는 여자들은 오히려 빼내고 싶은 여자들이 더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은 예수님의 족보는 사람들이 기록하는 그런 의미의 족보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의 족보를 이렇게 기록했을까요? 대답은 하나 뿐입니다.

사람의 족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싶으신 뭔가가 있어서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성경은 인간의 모든 약점이나 감추고 싶은 이야기를 감추지 않습니다. 이 족보가 사람의 글이라면 이렇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뭔가 하실 말씀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쓰신 책이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이 남았다고 이해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같은 원리가 다른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성경의 어떤 인물이라도 흠을 잡으려면 잡을 수 있습니다. 성경에 완벽한 인물은 없습니다. 위대하다고 하는 어떤 사람도 성경을 읽어보면 다 흠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다윗을 봅시다. 예수님을 뭐라 불렀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는 말은 곧 메시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부름에도 그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고 합니다.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 없지요? 베드로도 쪽팔리는 일 많이 했지요? 뭐 했습니까?

많이 했어요.

세상에! 지금 교황보다 더 권위를 가지고 호령하던 그 시절입니다. 마가가 그것을 기록하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세 번이나 부인했던 얘기를 자세하게 다 기록합니다. 죽은 사람 이야기를 쓴 것도 아닙니다. 현재 살아서 교회를 이끌고 있는 베드로의 이야기를 쓰면서 그렇게 창피한 얘기를 다 쓰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입니다. 또 누가 있나요?

모세...

모세가 위대해 보이지만 바보짓을 얼마나 했습니까!

아브라함...

자기 살자고 마누라 팔아먹은 사람 아닙니까? 누구라도 성경에 완벽한 인간으로 등장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쓰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이 있어서 쓴 책이기 때문에 사람의 잘못을 감추지 않습니다. 위인들의 전기를 읽어보면 어릴 때부터 정말 특이한 것으로 나옵니다. 성경은 그런 책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어느 선배님과 족보이야기를 하다가 예수님 족보를 왜 이렇게 기록했을까요 했더니 그분 대답이 참 재미있어요. 누구나 예수님에게 편안하게 나아오라고 이렇게 기록했다는 겁니다. 그런 점도 있겠다 싶어요. 예수님의 족보가 왕의 족보라서 으리으리한 사람으로만 꼭 차 있으면 조상을 생각해 보면 기가 죽어서 예수님께 못 나올 수도 있다는 거지요. 예수님 족보보다 우리 족보가 좀 더 훌륭하구나라는 생각을 가지면 누구나 예수님에게로 나올 수 있다는 말이지요.

교회 가자는데 내가 어떻게 교회 가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의 족보를 한 번 보라는 겁니다. 당신이 바람을 많이 피웠어요? 다윗만큼 피웠어요? 다윗같이 한 번 해 보셨어요? 아니라면 안심하고 나오라는 겁니다.

여자 분들도 한마디 해야 되겠네요. 다말보다 나오시죠? 그러면 안심하고 나오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누구라도 예수님께 기죽지 말고 나아오라는 뜻에서 족보를 이렇게 기록했다고 그 분이 말씀하시는데 동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잘난 사람을 부른 것 아니고 머리 좋은 사람을 부른 것 아닙니다. 재산 보고 부른 건 더더욱 아닙니다. 세상에서 약하고 가난한 사람을 불러서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오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것인데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뜻을 살피는 것도 은혜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적용을 해보면 우리 스스로 완벽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혹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인간이 완벽하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아니면 완벽하기를 원하십니까? 그것은 꿈이 너무 큰 겁니다. 포기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는 완벽하게 살려고 노력을 하십시오. 거의 불가능한 일이지만 마음을 그렇게 먹고 노력을 하십시오. 그러나 사람 앞에서 완벽한 존재로 서기는 포기하세요. 이유는 내가 완벽하고 흠이 없는 사람 같으면 다른 사람이 내게 다가오지 않아요. 다른 사람을 내게 이끌기 위해서는 완벽한 존재로 서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허물 투성이의 인간, 용서할 수 없는 인간들의 모습이 더러 더러 있는 것처럼 우리들의 삶에서도 그런 면이 조금 있는 것이 옳다는 이야기입니다. 죄를 지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편안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헛점이 있는 게 좋다는 뜻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쳐다볼 때에 만만해서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것이 더 좋다는 뜻입니다.

흔히 하는 말로 맑은 물에는 고기가 모이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죠? 이 말은 썩 좋은 말로 사용되지는 않습니다. 사람이 너무 깐깐하고 모나게 살지 말고 두루뭉실하게 살아야 된다는 뜻에서 이런 말을 쓰기도 합니다. 죄와 관련된 일에 있어서는 이런 게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과 어울려 살 때 원리원칙만 따지는 그런 사람이어서는 곤란하다는 뜻입니다. 푼수 짓도 가끔은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완벽한 사람 중에 이런 사람 있죠? 꼭 필요한 말 이 외에 쓸데없는 말은 한마디도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결코 잘 하는 것 아닙니다.

믿는 성도들이 모였는데 꼭 필요한 말만 하고 쓸데없는 말은 안 하면 분위기가 어떻겠어요. 딱딱하고 냉랭해요. 누가 찾아오겠습니까? 성경공부, 예배드릴 때는 헛소리하면 안되죠. 전도사가 여기 서서 헛소리하고 있어봐요. 누가 오겠어요. 그러나 항상 그러면 안됩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중에 꼭 필요한 말 적절한 말 외에는 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갖고 계시면 빨리 바꾸십시오. 엘리베이터에서 동네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거기서 필요한 이야기가 뭐 있겠습니까? “몇 층 가십니까?” 그게 뭐 필요해요? 그렇게 물었는데 “내가 몇 층 가거나 무슨 상관이야!” 하면 어떡하죠? 그래서 입 다물고 서로 외면하고 있어 보세요.

안녕하세요 한마디 정도는 해야 합니다. 아무 소용이 없는 이야기지만 해야 합니다. 그것이 분위기를 바꿔 주는 것이지요. 그래서 꼭 필요한 말만 해야 된다. 이걸 아닙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별 도움이 되지 않는 쓸데없는 이야기를 잘 해야 합니다. 왜요? 부드러운 분위기를 위해서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 완벽하려고 하지 말고 너무 엄숙하지 마세요!

성탄절 전야에 헤롯 역을 했는데 제가 태어나고 연극 무대에 서 보기는 처음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어색했고 뒤에 그것만 생각하면 자꾸 얼굴이 붉어져요. 나를 헤롯 시키려고 두 가지 조건을 제시했는데 그 중 한가지는 이쁜 시녀를 둘이나 붙여준다고 한 겁니다. 잠자리 날개 같은 옷을 입은 시녀를 둘 붙여준다고 했는데 제가 그것에 넘어간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무슨 말에 넘어갔느냐 하면 “전도사님이 이걸 하면 성도들이 좋아합니다”는 말에 기꺼이 하기로 한 겁니다. 애들 말로 쪽이 좀 팔리면 어떻고 연기가 어설프면 어때요? 성도들이 좋아한다는데. 그래서 한 겁니다.

형제를 위하는 일이라면 분수짓도 좀 하고 체면 깎이는 일도 좀 합시다. 본인은 스스로 체면이 깎였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더 가까워지는 것이죠. “나는 허물이 너무 많은데...”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너무 분수짓을 많이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본인 생각인지 남의 생각인지 확인해 보십시오. 남들도 그렇게 생각한다면 고치셔야죠. 남들이 좋아하거든 완벽하지 않은 자신의 그 모습을 사랑하십시오.

정리를 해 봅시다. 성경은 인간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미화하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성경이 하나님의 책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하나님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인간을 미화시키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은 것입니다. 성경이 사람의 책이 아니란 좋은 증거입니다. 이 성경을 더욱 사랑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가문의 추한 모습조차 그대로 다 공개함으로 세상 모든 사람들이 기죽지 않고 오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왕의 족보에도 이렇게 추하고 악한 사람을 그대로 다 기록해 두었는데 우리는 너무 깔끔하고 깨끗하게 자신을 나타낼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 낚시밥이 됩시다. 만만하게 보이고 한 입에 집어삼킬 수 있어 보이는 낚시밥이 됩시다. 그 속에 낚시바늘을 숨긴 채 말입니다. 누구나 쉽게 나에게 접근했다가 나 때문에 예수님에게 영원히 낚이도록 말입니다.